

정서가 결핍된 사회는 주거 환경에서

Poverty of Social Emotionality & Residing Environment

吳英治/건축사사무소 기미

by Oh, Young-Chi

우린 왜 이런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하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인가?

만들어짐이 불가능한 것인가?

금년 여름 살인적인 더위속에 시간에 쫓기며, 월틈없이 일을 하고 지친몸으로 이민국 대학총장을 찾아 벤쿠퍼에 갔다. 그의 집을 방문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도시계획상 Cluster형으로 된 택지공간이기에 교통의 흐름이 없이 조용하다. 그리고 공기가 맑다. 숲속에 여유있는 공간이 부럽다. 엄청나게 비싼집 같지만 강남에 있는 APT.32평 집값 정도이다. 이런 공간, 이런 주거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인성이 곱고 범죄가 없단다.

요즘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사건들, 이곳 저곳 TV좌담과 언론의 논조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거론하지만, 주거환경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겐 성격 형성의 장이 되고, 청소년들에겐 정서적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는 사람이 없다.

오늘날 우리 주거환경은 어떤가?

고밀도를 이루며, 삶을 영위하는 모든 APT단지 는 자연과 조화를 전혀 이루지 못한 Box형이다. 이것은 열악한 택지 조건 때문이라고 치자. 그러면 내부 공간은 어떤가?

법적 높이제한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슬라브와 반자사이의 공간을 없애 한개층이라도 더 지으려고 천정을 반자들에 의존하지 않고 윗층 슬라브에 직접 도배를 하기 때문에 코고는 소리, 소변 소리에 다음날 활기찬 작업을 위하여 깊은 잠에 폭 빠져야 함에도 뜬눈으로 하얀 밤을 지새우면 날카로운 감정으로 사회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일층 아니면, 이층으로 군락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오던 삶의 터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추진으로 어느날 자고 일어나면 정남향 양지바른 앞마당을 가로막고 괴물처럼 4층 건물이 들어서니 숨통이 막히는 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못된 투기꾼 극소수를 잡으려고 토초세를 도입하니 상추, 무우, 배추심던 텃밭은 조립식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서 알미늄새시 공장의 날카로운 절단소리에 소름이 끼치고 목공장 전기톱, 대패소리에 정신 착란이 일어날 것 같으며, 툭질할 때 나뭇가루 냄새, 칠할 때 칠냄새에 짜증은 가중되고 창고와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 새벽 단잠시간에 물건 운반 소리에 미쳐버릴 것 같은 공간에서 사는 우리들, 과연 이웃간에 오손도손 정담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이곳은 주거 지역이니 좀 남을 의식해서 조심해 달라손치면 미안한 기색없이 오히려 큰 소리치니 이웃간에 싸움질밖에 해결 방법이 없는 현실이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기만 하다.

물론 건축법에는 주거전용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하여 주거 환경을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 대전엔 주거 전용지역은 한곳도 없고, 주거지역안에 공장, 창고, 식당 등이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혼재하니 어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주거지역엔 주거만 허용하고 영업행위는 준주거 지역으로 몰아주어도 그들의 생업공간은 확보되리라 생각된다.

이젠 주택공급도 매년 8만가구 이상씩 남아돌아가 세일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이 본래의 1,2층 단독주택 군락내에 독버섯처럼 이곳 저곳 생기지 않아도 될것이 아닌가. 꼭 필요하다면 다세대 주택 택지조성을 하여 저밀도 주거지역을 신설해 옛부터 삶을 살아온 저층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보호해줄 방법을 찾아서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주거환경을 물려줌이 오늘날 우리의 책임일 것이다.